

발행처: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발행인: 임기선 요셉
 주소: 26 Carnarv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전화: 02 8756 3333

시드니가톨릭신문

The Korean Catholic News of Sydney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보좌신부: 전상현 스테파노
 노호영 미카엘
 고해신부: 홍 야고보
 수녀: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사목회장: 정영수 요한

VOL. 105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마태 5,24) 2014년 3월 1일 (월간)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안식년이 끝날 무렵 전임 교구 평협 회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신부님 벌써 사제서품 받으신지 25년이 되네요.” 서품 받은 지 몇 년이 되었는지 조차 관심이 없었던 터라 이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 안식년을 지내면서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 한 번 갖지 못하고 세상 즐거운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데만 집중한 탓이었다. 부끄러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사제서품을 받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았다. 서품 이후 첫 본당부터 지난 시절을 영화 필름처럼 떠올리는데 때로 아련하게 때로 선명하게 화면이 펼쳐졌다. 그러다가 어떤 때 일시정지가 되면 그 자리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처음으로 대전 유천동의 여름 캠프 장면에서 긴 시간 머물게 되었는데 중, 고등부 교사회와의 마찰로 인한 상처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첫 보좌로 발령을 받고 나는 본당 청년회 활성화에 열을 올렸다. 교사회는 튼튼한데 청년회는 상대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이었다. 우선 청년회를 청년연합회로 바꾸면서 각 팀으로 나누고 청년들이 선택적으로 선호하는 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했다. 그래서 교사회도 연합회의 한 팀으로 분류되었다. 자연스럽게 나는 주일학교 교사 보다는 다른 팀의 청년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전에 비하여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소원하게 되었다.

또 한 가지 화근이 된 것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사들에게 주일학교 교리시간에 가르칠 교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한 것이었다. 나로서는 교안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교사들의 생각은 달랐다. 하여간 언젠가부터 나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몇몇 교사들과 나 사이에 점점 벽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마침내 여름캠프 프로그램을 짜는 중에 이런저런 요소들이 도화선이 되어 내재하던 폭발물이 터져버렸다. 캠프기간 청년회에서 아이들 식사를 지금까지 준비해왔고 이번에도 청년회에서 그걸 해줘야 한다는 교무 선생의 말에 내가 발끈하여 소리쳤다.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사와 아이들을 위한 종이나? 절대로 청년들이 밥해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밥은 교사와 아이들이 준비하여 먹도록 프로그램을 짜!” 사실 속내는 가까스로 막 커져가는 청년회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주로 직장인들로 이루어진 청년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는 것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신학생 때 캠프를 지도했던 경험으로 미루어 아이들이 직접 밥을 해먹는 것도 교육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교사들과 나의 이런 생각을 조곤 조곤 나누기에는 어느덧 마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 교사 중 4명이 사표를 수녀님께 맡기고 그 후로 교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황당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서 나도 결전의 태세로 돌아섰다.

설득대신 임시교사와 신학생들로 대체하여 캠프를 진행했다. 물론 아이들이 선생님과 조를 편성하여 밥을 지어먹었다. 다행스

럽게도 아이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다. 그런데도 마음 한 구석에는 떨칠 수 없는 허전함이 계속 묻어왔고 떠난 교사들이 자꾸 눈에 밟혔다. 청년회원들은 3배로 불어나고 새로 교사도 임명했지만 답답함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나를 찾지도 인사도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어느덧 본당을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더 이상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 즈음 나는 용기를 내어 4명의 교사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돌렸다. 그리고 사제관으로 한 사람씩 불러 사과를 했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마음고생이 컸던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혼자 울었다.

다음으로 부임한 곳은 서산 시골본당이었다. 청년들은 몇 명 되지 않았는데 그나마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선 먹는 것부터 그랬다. 대전에 있을 때는 청년들이 제과점에서 빵만 사줘도 감지덕지 하면서 잘 먹었는데 빵집에 가자고 했더니 우리가 애들이냐고 하는 통에 처음부터 심하게 빈정댔다. 그리고 마치 젊은 혈기가 다 빠진 노인들처럼 청년들은 뭘 시켜도 신통치 않았다. 그래서 자꾸만 보채고 다투만 했다. 그런데 그들은 더 더욱 곱돌았고 심지어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다. 그때서야 마음먹고 진지하게 청년들과 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청년들에게 근사한 커피집으로 다 모이라고 했다. 그리고 조용한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우리들의 소통문제를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이 때다 했는지 청년 중의 한 명이 비장하게 카드를 빼들었다. “신부님은 말 끝마다 유천동 청년 이야

기를 하면서 저희들을 그들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천동 청년들이 아닙니다.” 망치로 얻어맞은 듯 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죽었다. 그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으려니 생각했던 나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사실 그랬다. 그러면서 나는 그 말들이 이들에게 그렇게 전달될 줄을 생각지도 못한 것이다. 사태 수습을 위해 나는 다음 주에 삼겹살을 다시 쪄겠다고 했다. 그리고 “안 오면 다 죽어!” 하면서 머쓱하게 주먹을 들어 보였다.

약속일에 삼겹살 식당에서 “오늘은 내가 보속하는 날이다. 내 빚을 내더라도 다 사줄 터이니 오늘은 술과 삼겹살을 퍼지게 먹으라”고 했다. 모두 늘어지게 먹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내가 돈을 내려는데 주인이 벌써 계산이 끝났다는 것이다. 뭐야? 하고 돌아섰을 때 청년회장이 대답했다. “신부님 돈 없는 거 다 알아유!” 나는 또 한 번 KO 펀치를 맞고 뺏겼다. 그리고 신부를 그렇게 기죽이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후 돈 내는 싸움에 밀리지 않으려고 헐박까지 했다. 이것마저 지게 되면 낮 뜨거워 청년들을 못 만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24년의 삶을 돌아본 뒤 보좌신부 이후로 나의 영성생활, 순수함, 배려, 올곧음, 가난, 정결, 겸손 등으로 분류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니 이 모든 종속변수들이 서품연수에 반비례하여 계속 하강곡선을 그렸다. 고백하건데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보좌신부 3년하고 죽었으면 나는 천당에 갈 확률이 높았다.

서품 25년을 맞이하는 해에 새로운 소임을 받은 것이 본당신부다. 사실 보좌신부 때부터 나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본당신부를 하고 싶었다. 오랫동안 특수사목 분야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본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인사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냥 작은 한국본당도 황송한데 시드니 한인본당으로 그분께서 나를 보내주셨다.

낮설고 물신 이국땅을 찾아 우리의 본 고향인 새 하늘과 새 땅(베드로 2서 3,13)을 꿈꾸며 인생길을 펼쳐는 멋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말이다. 그래서 참 행복하다. 이제 마음을 다져먹고 서품 처음의 그 자리로 돌아가야겠다.

(주임신부 임기선 요셉)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부부사랑”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사랑하며 함께할 수 있을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날 모든 부부들이 직면한 도전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순간적인 마음 상태가 아니라

늘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바라보며 가꿔가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항상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예의는 자비의 자매이며, 증오를 불식시키고, 사랑의 불을 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부로 살아가면서 실수에서 배우고 실수했으면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태동!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지난 2월 한 달은 본당이 참으로 분주한 달이었다. 2월 9일 김동규 전 주임신부님의 송별식을 시작으로 16일은 임기선 요셉 주임 신부님, 노호영 미카엘 보좌 신부님, 이남웅 스테파노 신부님의 환영식이 있었고 같은 날 이어져 장금자 메리노 수녀님의 송별식이 있었다

또한 23일은 4년 간 본당에서 봉사하신 이호순 웰레스티나 수녀님의 송별식에 이어 새로 오신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수녀님의 환영식이 이어졌다.

송별의 아쉬움을 미쳐 떨치기도 전에 새

로 오신 신부님과 수녀님을 환영하는 교우들은 석별의 정과 만남의 기쁨을 한 순간에 가지며 본당에 내리는 하느님 은총에 감사드렸다.

임기선 요셉 주임 신부님을 위시하여 두 분 신부님과 세분의 수녀님을 새로 맞이한 시드니 공동체는 지난 날의 아픔을 잊고 내적 성전의 완성을 위해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주는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우리 본당을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하고 떠나신 김 신부님과 두 분 수녀님들의 영육간에 건강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기도를 바칠 것이다.



김 미카엘 신부님께 드리는 편지

김동규 미카엘 신부님은 본당에서의 소임을 모두 마치고 지난 2월 13일 목요일 아침 많은 교우들의 뜨거운 환송 속에 공항으로 향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밝고 환한 모습으로 떠나시는 미카엘 신부님은 그 동안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정리하고 치유하도록 기도로서 청하여 하느님 성전인 우리들의 마음을, 처음 세례 받던 그때처럼 다시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을 당부 하셨다. 다음의 글은 신부님과의 석별을 아쉬워하는 본당 청년의 글이다.

미카엘 신부님...

신부님이 저희 성당에 처음 오신게 엇그제 같은 느낌인데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이렇게 이별을 마주했네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이지만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와 아쉽고 서운하고... 많은 감정들이 교차합니다.

사실 시드니 한인성당의 수많은 청년들 중 한사람으로서 일주일에 한번, 미사에서 뵈는것이 고작이었을 정도로 제가 주임신부님과 마주할 시간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신부님은 마냥 어렵기만 하고, 너무 높은곳에 계시는 것 같아 먼저 다가가거나 말을 쉽게 붙힐 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신부님과의 인연은 신부님이 몽골 병원을 후원하시기로 했다는 기사를 처음 접했을때 었습니다. 항상 성당을 통해 해외에 봉사활동을 하기를 꿈꾸고 있던 차에 그 기사는 제게 그 꿈이 현실화 될 수도 있겠다는 첫번째 희망을 준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사 덕분에 2년 전 네발 의료봉사를 준비할 때에도 신부님께 선뜻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또 그때의 경험이 파푸아 뉴기니 봉사를 다녀올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아프리카나 캄보디아 등등 한곳에 그치지 않고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하시는 신부님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이며, 그리고 제가 시드니 천주교회의 한 청년으로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부님께서 행동으로 몸소 보여주신 많은 일들이 아니었다면 아마, 하나의 작은 나눔이 훨씬 더 큰 나눔으로 뻗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부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회와 경험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왜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그것은 제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신부님과의 만남은 주님께서 주신 큰 선물입니다. 저희 성당에 오셔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였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지만, 신부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고 또 전파하신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 성당의 한사람 한사람에게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크고 작은 변화들을 알아채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앞으로 우리 공동체가 뻗어나갈 길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들도 같이 따라올 것이라 믿고 있기에, 저희 성당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고 기도해 주신 신부님이 갈수록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신부님, 언제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구요,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걸 기억해주세요. 항상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청년 연합회 박새미 가브리엘라 올림)

2014학년도 은빛대학 개강

2월 6일, 본당 어르신 교우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는 은빛대학이 개강 하였다.

은빛대학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미사 후에 시작된다. 가벼운 체조와 댄스로 몸을 풀은 뒤 성경강좌를 듣고, 각반 나눔 시간 후 식사를 같이한다.

식사 시간 후 각자 자신들이 배우고자 하는 다양한 특별활동시간 (노래교실, 라인댄스, 창작공예, 컴퓨터, 스마트폰 교실, 생활영어반 등)이 있다. 2014년, 네번의 학기 동안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일정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여 유연과 재산관

리 특강, 당뇨와 치매예방 등 노인건강세미나, 헤어관리, 낙상방지과 물리치료 특강 등이 마련되어있다. 2월 6일 개강식에서는 지난 2010년 3월 은빛 성경학교를 개설하여 2013년 7월 은빛 대학으로 승격하기까지 지난 4년간 은빛대학에 열정을 쏟으신 김동규 전 주임신부님을 송별하며 조훈 엘리사벳 자매님의 송사당독과 함께 그 동안의 추억을 모은 동영상 상영하였다. 김동규 미카엘 전 주임신부님도 은빛대학 학생들과 나눈 그간의 각별한 애정을 표하며 학생들을 축복하셨다.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 5주기 연도

연령회에서는 2월 17(월) 오후 7시 30분 미사 후 김수환(1922-2009) 추기경 선종 5주기를 맞아 200여명의 교우들과 함께 연도를 바쳤다. 연도를 바치고 나온 교우들은 김수환 추기경

님을 추모하고 그분의 생전의 말씀과 영성을 되새기는 뜻 깊은 기도였다고 말하며, 5주기 연도를 준비한 연령회와 연도에 함께 해주신 주임신부님께 감사 드렸다.



베데스다 천연 건강즙

정성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한끼 식사값으로 가족의 **한달 건강**을 챙기세요

베데스다는 無설탕 無방부제 無색소 원칙
오직 호주에서 재배된 신선한 야채와 과일만을 사용합니다.

시드니 전지역 배달가능합니다.

2 Wallace St Sefton 2162
9786 4945 / 0425 677 878



코리아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직접 발권 / 해외 패키지
성지순례 / 호텔예약


캠시본점 9787 6633	이스트우드 점 9804 1200
--------------------------	-----------------------------

이명순 데레사



영양돌출전문점
북창동 순두부

9868 4300 박만원 (토마스)
10/74 RAWSON ST, EPPING



글로리 병원
Glory Medical Centre

General Practitioner, 가정의, MBBS(Syd), FRACGP
원장 **이욱배 / Dr U.B. Lee**

Mon - Fri 9am - 6pm / Sat 9am - 1pm
18 Bridge St, Lidcombe
T.9649 3333 F.9649 3366



Oh-My

오-마이 김밥

파티, 결혼 및 장례 음식

el 9718 1118 / Mob 0416 209 750
594 Canterbury Rd. Belmore



아이씨 안경원
i see OPTICAL

정밀한 시력검사
최상의 고객만족
각종개인보험 즉석처리

녹내장, 망막 황반변성, 백내장, 시야검사
당뇨 환자의 눈검사, 어린이 시력진단
렌즈수술 전문의 진의서,

한국인검안사 6명 근무
T 9858 3886 116 Rowe St Eastwood 2122 (미라식당옆)



삼성한의원

건강은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원장: **강 성후**(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진료안내 및 예약 **9746 3537**

▶ Strathfield 본원 - 1/12 Churchill Ave Strathfield
▶ Lidcombe 분원 - 1-3 Mary St Lidcombe
(침구치료 본인부담 없음 (Conditions Apply))



대호여행사
EASTWOOD

김기남 마리안나 이스트우드 9874 3311
Mobile 0414 433 611

대한항공 판매 대리점, 아시아나 특가발권
전세계 항공 예약 및 호텔 판매



“로자리오 할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용서, 사랑 만발해야!’ 임기선 요셉 주임신부님 강론

1991년 10월19일은 가을의 절정인 토요일이었다. 여의도 광장은 주말을 맞아 인파로 가득했다. 흰색 프라이드 승용차가 마치 영양 때를 덮치는 사자처럼 인파 가운데로 달려들었다. 2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2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스무살의 범인 김용제는 경찰에서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말공장에서 쫓겨난 뒤 부산의 신발공장에 다시 취직했으나 또 쫓겨나 1주일전 서울로 돌아왔다”며 “이왕 죽을 바에야 세상에 복수하고 죽자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6년1개월 동안 사형수로 지내다 1997년 12월 30일 다른 23명의 사형수와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희생자 가운데 윤신재라는 6살 아이가 있었다. 세발자전거를 타고 여의도 광장을 달리던 아이는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 아이를 자기 손으로 키우다시피 했던 가톨릭 신앙인 로자리오 할머니는 김용제가 사형선고를 받은 뒤 그를 찾아간다.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는 용제를 보면서 할머니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린다. 그리고 할머니는 원수의 옥바라지에 나선다. 어느 날 할머니는 그를 위해 유명한 안과 의사와 함께 방문하여 안경을 맞춰 준다. 할머니는 자신이 건넨 안경을 쓴 신앙인 요셉으로 변한 용제와 함께 성경을 읽는다. 코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이었다. 할머니의 남편이 화병으로 세상을 등졌고, 자식의 죽음으로 상심한 며느리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죽음들 앞에서 어찌 “성내지 아니하고 앙심을 품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할머니는 그의 불운한 과거 속에서 용서와 사랑의 열쇠를 찾았다. 용제는 재소자가 새로 들어올 때마다 옆드려 통사정을 해서라도 그 발을 씻어 주며 죄를 씻기를 바랐다고 한다. 굶주리는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꼬박꼬박 금요일 점심을 굶기도 했다.

시드니 한인성당의 10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임기선 요셉 사제는 부임후 두번째인 연중 제 7주일강론에서 이날 복음말씀의

요제인 ‘용서와 사랑’을 손 발이 묶인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범인 용제를 용서한 로자리오 할머니가 몸소 보여준 사랑의 위대함으로 대신했다. 시드니 한인공동체 안에서 제2의 로자리오 할머니를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용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와 신앙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본보 초대석과 인터뷰에서도 신부님은 가톨릭 신앙인은 높은 차원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 길은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 문을 열었다.

- 시드니 한인 공동체가 가슴앓이에서 벗어나 신부님 부임을 계기로 더 성숙한 교회와 신앙인이 되자는 신자들의 각오와 다짐이 새롭습니다. 더 화합하고 행복한 신앙인이 되자면 그 첫 걸음이 무엇일까요?

“성당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때 신앙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나뭇대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동시 각자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배려와 겸손의 미덕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선 공동체의 실상을 파악하기위해 각 층의 신자들을 만나 얘기를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임후 기회 있을 때마다 신자들과 격의 없이 만나 공동체 안에서의 신자들의 아픔을 직접 듣고 메모하는 신부님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구순의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빈소에서 만나 이들을 위로하고 교회에 대한 건의 사항 등을 꼼꼼히 챙기는 등 주임 신부님의 손길이 곳곳에 미치고 있다.

- 신부님의 구체적인 사목방침에 대해 궁금해 하는 신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상중인 것이 있다면 들려 주시죠.

“아직 본당의 사정을 잘 몰라 사목방침을 말하기가 이른 것 같아요. 일단 전임 신부



님이 정한 틀에서 보충할 생각이며 나뭇대로 본당의 사정을 익힌후 새 사목방침을 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상처를 남기기 보다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서 나뭇대로 주력할 것입니다.”

‘상생의 공동체’에 대해 이런 비유를 들었다. 노끈으로 포장 된 꾸러미를 풀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간단한 것은 날 썬 가위로 끈을 싹둑 잘라버리는 방법이다. 이는 쉽지만 생채기를 만드는 후유증이 남게 된다. 다른 길은 좀 시간이 걸리고 쉽지 않지만 끈의 매듭을 찾아 하나 하나씩 풀어가는 방법이다. 요셉 신부님은 끈을 잘라 버리기 보다 매듭을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치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 한인동포사회와 아픔을 같이하는 교회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포사회의 성숙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옳은 지적입니다. 교회가 교회안에 안

주하면 복음의 정신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이 소공동체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웃과 사회를 향해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신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존경과 신망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교회가 소속사회와 고립된다면 사회에 소금과 빛의 복음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지역사회에 대해 우리 교회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 신부님은 군종신부를 마치고 미국 캘리포니아 풀러튼(Fullerton)주립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 ‘신앙생활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만큼 지역 사회 문제에 사제로서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4년간 미국 유학 후 솔피성지 피정의 집 제6대 관장, 괴정동 성당 주임신부, 대전교구 사목 기획국장을 거쳐 안식년을 보낸 후 이번에 시드니 한인성당 주임신부로 발령받았다.

(대담: 박병태 이나시오 편집고문)

패밀리 데이케어
Croydon • Newington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 공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 놀이를 통한 신나고 재미있는 한글 교육 및 영어 교육
★ 가계, 이야기 나누기, 동화, 동요, 수, 과학, NIE
★ 음악·미술과 함께하는 통합교육
★ 간식·점심 제공 센터링크 보조(CCB,CCR)
3세~취학전 아동
전화 문의: 0422 647 515 (Croydon)
0425 234 130 / 9648 2786(Newington)

NOBLE KIA TOYOTA SUZUKI
Chullora / Greenacre
한국인 컨설턴트
에릭 리
사도요한
★ Special Finance Offer 진행중
0498 888 009
8756 9871(직통)
elee@noblekia.com.au
121 Hume Hwy Chullora

AECO DENTURE CLINIC
에코 틀니 전문 클리닉
Dental Prosthetist 이상현 안토니오
“전성을 위해 틀니를 제작해 드립니다.”
전체/부분 틀니
부서지거나 손상 된 틀니 수정/교정
험겁거나 맞지 않는 틀니 수정/교정
예약 전화 9874 1099, 0407 380 390
주소 1/19 Rowe Street Eastwood

Virtuoso Coffee
Roast and Supply
맛있고 신선한
원두커피를
공급해 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샘플빈을 우송해드립니다.
www.virtuosocoffee.com.au
김세준 다니엘 0401 907 304

“사랑을 드리고 신뢰받는 병원” 성모치과
Gentle Cosmetic & Preventive Dental Care
진료과목
임플란트 / 치아미백 / 심미치과 / 교정
진료시간
월~토(오전 9시~오후 6시)
56 Railway St, Lidcombe 2141
T 9649 1800

다.드림 Outlet
아동복 빅사이즈
여성캐주얼 미씨캐주얼
185 Beamish St Campsie
Mob: 0414 588 700 (박 멜라니아)

호주 청정우·화환 한국택배 전문업체
동서유통(벨모아)
원하시는 부위를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날짜에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한국으로 보내드립니다.
한국전지역
꽃배달
경 조사용 꽃 배달 서비스 실시!!!
동서 유통 이수룡 다니엘 070 7884 7560
351A BURWOOD RD.
BELMORE 2192
(동서 정육점 직영)
T. 9750-2694
M. 0425 213 503

NEWBORN NB
BUILDING & CARPENTRY
신축, 증축, 실내 인테리어, 샵피팅
파골라, 데크, 마루 시공, 화장실 레노베이션, 페인팅
간단한 핸드맨일 문의도 환영
ABN : 35 189 753 315 / LICENCE NO : 257998C
M 0430 379 269 M 0421 073 706
General Carpentry / Maintenance / Repair / Basement / Shop Fitting
Remodeling / Owner Builder Assistance & Renovation
Patio & deck / Bathroom / Kitchen

우리나라 이민자 첫 주교 탄생

아르헨티나 교포 문한림 신부, 주교 임명...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떠난 이민자 가운데 첫 주교가 탄생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르헨티나

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 소속 문한림(유배날, 59, 사진) 신부를 산마르틴 교구 보좌주교이자 수투누르카 명의주교에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해외 교포 사제가 주교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해외 활동 한인 주교로는 주 태국 교황대사장인남 대주교에 이어 두 번째다. 문 주교는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보유한 채 아르헨티나 영주권만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1955년 경기도 수원 태생인 문 주교는 서울 정릉동본당 출신으로 소신학교인 서울 성신중·고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 신학대에서 수학하던 중 1976년 가

죽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신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 10월 12일 사제품을 받았다.

산카예타노 본당 보좌로 사목을 시작한 문 주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한인본당에서 한국어에 서툰 한인 2세들을 지도하다 로마로 유학을 떠나 교황청 그레고리오 대학에서 영성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뒤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사도들의 모후'본당 신부, 테오도로 알바레스 병원 원목, '교회의 어머니 마리아'본당 신부를 거쳐 2003년부터 '성 고스마와 성 다미아노'본당 신부를 맡아 왔고, 교구 사제 평생교육 과정

책임자와 아르헨티나 한인천주교회 공동체 지도신부를 겸임했다. 현지에서 스페인어를 몰라 1년 넘게 무진 고생을 하다 '귀가 열리는' 체험을 한 문 주교는 라틴어와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에 두루 능통하게 됐는데, 이제는 언어가 사목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관구에 속해 있는 산마르틴 교구는 총 인구 76만 1000명에 가톨릭 신자가 52만 5000여 명으로 복음화율 68.99%를 기록하고 있으며, 본당 102곳에 교구 사제는 79명, 종신부제는 29명, 수도자는 179명에 이른다. 주교 서품식은 5월 4일 현지에서 열린다.

한글학교 2014년도 학기 시작

리드콧 St Joachim Primary School에서 공부하는 시드니 한인 천주교 한글학교는 지난 2월 1일에 2014학년도 첫 학기 개학과 입학식을 가졌다. 한글학교 교사회는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방학기간 동안 1박 2일 피정과 연수를 가지고 새로운 교육안에 대해 서로 연구발표하고 주임신부님과 원장수녀님으로부터 우리글은 물론 우리의 전통 문화교육과 함께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도록 교회의 가르침을 청해 들었다.



본당 한글학교의 학생들은 기초부와 유치부에서부터 9학년까지 학급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 280여명이 등록되어 있다. 교사

들은 믿음이 깊으며 우리말과 문화 교육의 질이 높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한글학교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구형회 소식

“9지구(바오로지구) 야외모임”



2월 23일 9 지구(지구장 김순희 루시아)의 야외모임이 뉴잉턴 공원에서 있었다. 약 120명의 지구원들이 모인 가운데 한 마음 한 얼굴로 즐거운 친목을 다졌다. 지구의 임원들은 지구 소속의 한 교우라도 더 참석하게 하려고 게임과 음식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혹시나 날씨가 궂으면 어쩌나 긴장하였는데 푸른 하늘에 밝은 햇살이 9지구의 야외모임을 더 기쁘게 하였다. 참석 교우들은 성당에서

미사시간에 얼굴을 마주치고 인사를 나눌 뿐 같은 지구에 살더라도 구역이 다르면 서로 만나기 힘들고 바쁜 생활로 인해 교우의 정을 나눌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이렇게 밖에서 자유롭게 만나니 이웃사랑과 연대감이 절로 생기는 것 같다며 자주 모였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임기선 주임신부님과 원장 수녀님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같이 참석하여 축복해주시며 마음을 나누었다.

바른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장원 안토니오 (Anthony Lee)**
NSW 주 대법원변호사, 시드니대 법대졸업, 성균관대 법대졸업, 맥쿼리대 통번역석사.
주요 법률서비스
보상관련(교통사고, 직장사고, 공공장소사고 등),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가족법(이혼, 재산분쟁, 자녀양육, 유언장), 파산법(회사정산, 개인파산) 부동산 & 비즈니스매매, 상가임대차, 각종계약서, 주류라이센스
Suite 124, Level 6, 330 Wattle st Ultimo
T 9281 1771, F 9281 1774

차량용 블랙박스 & 자동차 악세사리
스마트 아이에서 해결하세요
전화 : 02 8041 2110 or 0488 36 88 22
Shop 16, 16-20 Henley Rd Homebush West 2140 (플래밍턴 역에서 3분)

Healthier choice for Healthier Living
신선 자연건강식품
HealthPlus MEKEN
버우드 본점 Tel: 02 9744 7000 / 226 Burwood Rd, Burwood NSW 2134
시티점 Tel: 02 9264 5200 / Shop 10, 324 Pitt St, Sydney NSW 2000

제일종합금융
홈 · 비즈니스 · 상업용 · 건설용
오랜 경력의 금융전문가 정문기
● Commonwealth Bank 14년
● 제일은행 18년
● 제일종합금융 9년
T. 02 9877 0355 / F. 02 9877 0366
M. 0414 300 394 / Suite 33, 41 Rawson St. Epping
(에pping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이/스/트/우/드
하나식품
모든 식료품, 신선한 과일과 야채, 친절함 서비스
- 박정철 요한 -
Tel: 9874 1581 27 Railway Pde, Eastwood

제이원 보석
J.W. Jewellery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결혼예물, 커플링, 돌잔치 등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금 매입합니다.
T. 9763 1355 M. 0423 672 553
(플라자 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세요)



요셉 성인과 아기예수님

가톨릭교회는 3월 19일을 성 요셉 대축일로 지정하여 모든 이들이 요셉성인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다. 만약 이 대축일이 사순시기 평일에 있다 하여도 이 날만큼은 특별히 대영광송을 노래한다.(단 사순주일과 겹치면 사순 주일이 우선된다.)

성 요셉은 예수님의 양부이자, 마리아의 남편으로, 복음에서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전하고 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느님께서 더해주시다”에서 유래된 것이다. 비록 요셉성인에 대한 내용이 복음서들 안에는 많이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교회는 대대로 요셉성인에 대한 공경을 이어 나갔다.

성인에 대한 공경은 오랜 전승에 의해 이어지다가 본격적으로 축일로 자리 잡은 것은 12세기 무렵부터이다. 예루살렘 성지를 이슬람에게서 탈환하려는 십자군은 요셉 성인을 공경하고자 나자렛에 교회를 세웠고 그 뒤로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에 의해 성인에 대한 공경과 그 축일이 유지되어 왔다.

그 후, 1479년 교황 식스토 4세는 요셉 성인의 축일을 모든 교회로 확산시켰고, 1870년에는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거룩한 교회

의 수호자’로 선언되었다. 또한 1955년 교황 비오 12세는 5월 1일을 ‘노동자들의 수호자 성 요셉 축일’로 정하기도 하였다.

한국교회는 파리와방전교회 소속으로 조선대목구장을 맡고 있던 앵베르 주교의 요청으로, 184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에 의해 성모 마리아와 더불어 한국교회의 공동 수호자가 되었다. 요셉 성인에 대한 공경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1515-1582)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했는데, 성녀의 자서전에는 목상기도를 전념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신심으로 가지고 성 요셉을 공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성인의 가문은

마태오 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다윗 집안의 후손이다. 다윗은 다시 이사이의 아들이며 이사이는 유다가문의 후손이다. 또한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는 요셉 성인이 다윗의 자손이며, 또 하느님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한 사이였는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남모르게 파혼하려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성

인의 남다른 배려심을 엿볼 수가 있다. 그 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전해들은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성모님의 보호자로서 성가정을 지키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살아가게 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이자 성모님의 남편으로서의 요셉은 하느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따르며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성인의 삶을 기억하며 그와 같은 모습을 살 고자 다짐하는 성월이 3월 요셉성월인 것이다.

성 요셉의 덕행

- 1. 정결한 남편
 - 동정을 지키신 분
 - 소유하지 않는 사랑
- 2. 의로우신 분
 - 침묵하시는 분
 -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의로움을 갖추신 분
- 3. 성실하신 분
 - 하느님의 성실한 종
 - 성가정의 성실한 가장

성 교회의 성 요셉 공경

- 1. 성 교회의 수호자
- 2. 성 가정의 모범
- 3. 무신론적 공산주의와 투쟁하는 이들의 주보성인
- 4. 노동자들의 주보성인
- 5. 환자와 임종하는 이들의 주보성인
- 6.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주보성인
- 7. 정결자들의 수호성인
- 8.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보호자



“아버지”

소설가 김정현의 작품 ‘아버지’가 한때 필독서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다. 소설 속 아버지는 자신의 죽어가는 병보다 딸아이를 더 걱정하면서 희생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요즘 많은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본다.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으면 한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며 마리아와 요셉에게 맡겨서 구

약에서 하신 약속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려 하였고, 요셉 성인은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마리아를 끌어안고 목수일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를 성장시켜 오셨다.

상대방을 대할 때 상처 받지 않게 배려하는 것,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것,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떠안는 것, 이것이 요셉 성인의 모습이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가 가족에게 드러내야 할 아버지상이기도 하다.

사실 성인께서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은 분이시다. 같이 살지도 않은 마리아의 임신

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의 잉태가 그토록 믿어 왔던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는 또 하느님께서 주신 그 어린 핏덩이와 산모를 헤로데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도록 하신 것을 기꺼이 받아 들인다. 그분은 이처럼 끝없는 도전을 받으면서 모든 시련을 이겨 나가며 살아야 했다.

요셉 성인은 성 가정을 꾸리고 이끈 가장이었지만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겸손한 분이셨다. 요셉 성인은 한 마디 대꾸도 없으셨고 자신의 의견은 어느 누구에게도 내비친

적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그 자체가 체이었다. 그분은 시련의 연속을 무던히 참으면서 아름다운 성 가정을 꾸리는데 성모님과 언제나 함께 하였다.

예수님의 구원 활동과 성모님의 은총의 삶 뒤에는 침묵으로 묵묵히 봉사한 요셉 성인의 도움이 자리하고 있음을 되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넉넉함을 잊지 말자. 말씀이 없으시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외로움과 아픔을 당연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물어버린 그분의 간절한 소망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

SDT
시드니일일관광

시드니 일일관광
포트 스테판, 블루마운틴, 시드니 시내관광
멜번, 케언즈, 뉴질랜드 남섬 등

8214 8822 G Floor 302 Pitt St. Sydney
0411 457 222 김예환 스테파노

다이아몬드생수

“맹그로브 마운틴의 천연 심층 암반수”
물은 흠뻑이 맛있습니다!

15리터 \$9.90
Cooler 대여해 드립니다.

0416 100 499 / 0404 044 117

WISDOM EDUCATION
OC, SELECTIVE & HSC SPECIALISTS

✓ Primary School subjects,
✓ High School subjects &
✓ HSC subjects

TERM2 에 등록하시면 매학기마다 20% 할인*

20% 할인

Tel: (02) 8710 3466 | 3 John St, LIDCOMBE
www.WisdomEducation.com.au
*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라스마니아로 오세요

공항 픽업 부터 관광 숙박 식사 까지 한번에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단체, 피정환형

0400 876 663
03 6273 1162 홍 순기(다니엘)



살아 숨쉬는 공동체

3월 9일 사순 제1주일
마태 4,1-11

I 질 문 I

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나 어려움이 성령의 뜻이었다고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4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 준 성경말씀은 무엇입니까?

I 목 상 I

지난 3월 5일(재의 수요일)에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에 재를 엮는 예식을 거행하였으며, 사순시기를 시작하면서 자선과 기도와 단식에

관한 복음 말씀(마태 6,1-6,16-18)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십니다. 이렇듯 악마의 유혹은 우리를 달콤하게 현혹시킵니다.

노아의 홍수가 40일간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40년간 광야생활을 하였으며,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은 40일(사순시기) 동안 정화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삶 속에서 떠오르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생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제가 조심해야 할 세 가지인데요. 재물, 이성, 권위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이성과의 관계입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요. 연애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저는 이성과 일대일의 만남이 너무나도 어색합니다. 착한 목자의 마음으로 이성을 대하려고 노력하지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때로는 유혹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혹은 살면서 가장 잘 걸려 넘어지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일(연중 제8주일)에 우리

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복음 말씀(마태 6,24-34)을 들었습니다. 수도자들이 복음삼덕(청빈, 절결, 순명)을 서원하듯이 우리도 삶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외의 다른 선택들은 모두 악마의 유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요?

3월 16일 사순 제2주일
마태 17,1-9

I 질 문 I

2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게 졌다.
→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변하시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다면, 나의 반응은 어떨까요?

4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 현재의 만족과 안락함에 안주하고자 십자가를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7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 만약 나에게 교황님의 전화가 온다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나누어 봅시다.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 주님과 약속을 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례를 나누어 봅시다.

I 목 상 I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들은 예수

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은 당신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말씀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 뒤에 나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모든 신앙인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의 길을 본받아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합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충실히 걸어가다 보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다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삶의 기쁨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힘겨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반면, 베드로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보고 자신의 고통과 시련을 외면한다면 주위의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체험을 하면 가장 먼저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제가 부제품(2003년 12월 13일) 받았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교회의 사람으로 살면서 혹시 하나님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면서도 새로운 직무에 대한 설렘이 교차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필리피 2,12) 부제품을 받았었습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부활대축일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기 삶의 십자가(고통과 시련)를 기꺼이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신앙 안에서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3월 23일 사순 제3주일
요한 4,5-15,19

I 질 문 I

10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나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5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나의 간절한 목마름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던 체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 미사참례, 기도, 봉사 등을 진심한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41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 세례 후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I 목 상 I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먼저, 예수님이 여인에게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을 청하지만, 나중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영원한 생명의 물을 청합니다. 물을 매개로 이루어진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물질세계를 뛰어넘는 천상 세계를 맛보고, 자신의 과거를 치유하면서 변화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에핑건강식품
각종 꿀, 각종 건강식품
각종 화장품, 양모 제품 및 호주 토산품
9876 8282(빨리빨리)/9876 6071
0404 070 338(24시간)
27 Rawson St. Epping

변호사 이수봉 토마스
LSB LAWYERS PTY LTD
시드니 법대 학사(LLB)/맥쿼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상해보상, 유언상속
Lev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83

“정성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머리방
에터미 회원님들께는 특별할인을 해드립니다
<꼭 예약바랍니다>
Tel: 8084 8417 / Mob: 0430 477 723
12 Edgar St., Eastwood

신개념 운동 재활병원
KIM'S HEALTHCARE CLINIC
KIM'S HEALTHCARE CLINIC
• 치료 마사지 / 운동 물리치료
• 체중 관리 / 다이어트
• 소그룹 운동 / 퍼스널 트레이닝
• 뷰티 트리트먼트
WWW.KIMSCLINIC.COM.AU
스트라스필드 9764 1088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4층
이스트우드 9858 2200 Level 2, 29 Rowe St. Eastwood

리드컴 안경원
다양한 제품
친절한 서비스
최신 신상품
최신식 설비에 의한 정밀 시력검사
Medicare 및 개인보험 이용가능
9643 1000
11 Joseph St, Lidcombe NSW 2135
(중앙식품 맞은편, 해피마트 옆)

Home Plus 의전 홈플러스
의류, 주류, 토산품, 건강식품, 식품, 생활용품
블라인드 & 커튼 사업부 : 블라인드, 커튼, 벽지
무료견적, 직접생산, 빠른시공
Tel ; 9742 1188 / Mob. 0400 11 8282
49 - 51 Punchbowl Road, Belfield

김상진 회계사
절세 신속 성실
• 개인/회사 소득세 신고
• 회계사무실 개업 19년 경력
• ABN, GST 회사 설립
• Macquarie대 회계학 석사
• 세무상담/은행융자 상담
T. 8756 5522
1D, 9 Redmyre Rd, Strathfield (윤중병원 옆)

리드컴 제과점
Joseph's Bakery
10 Joseph St. Lidcombe (중앙식품 옆)
8084 8580 0431 523 157

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기 위해서
는 자신의 과거를 하느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합니다. 사제로 살
다보니, 고해성사의 은총으로 새로
게 태어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
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평생 동안
그 누구에게도 털어 놓지 못했던 응
어리들을 용기 내어 하느님께 아뢰
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
지는 하느님과의 화해와 용서, 상처
와 아픔의 치유가 새로운 인생을 살
도록 변화시켜줍니다.

제가 작년에 신앙의 해를 보내면
서 성경통독을 했는데요. 하루 1시
간, 백일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80번
만에 완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
으로만 읽다가 분심, 잡념이 많아지
면서 나중에는 크게 소리 내어 읽었
습니다. 한편, 저는 고등학교를 졸
업하고 20년 동안 20kg의 살이 찘
었는데요. 작년에 8kg의 살을 뺐습
니다. 성경읽기를 통해 영적 양식을
채우고, 살을 빼면서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다 보니 예전과는 다르게 변
화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창설한 사
랑의 선교회 경당에는 십자가 아래
와 감실 위에 “목마르다”는 말씀이
적혀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가상칠언)은 우리
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어
디에서 찾아야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만
남을 이루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
쁨으로 변화된 생활 속에서 구원의
길에 동참합니다.

3월 30일 사순 제4주일
요한 9.16-9.13-17.34-38.

I 질 문 I

7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
어 돌아왔다.
→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고 이
웃을 새롭게 바라보게 된 계기가 있
습니까?

17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
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
오?”
→ 나에게 신앙의 눈을 뜰 수 있도
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35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
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
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

냐?” 하고 물으셨다.
→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였지만
믿음으로 인하여 위로받았던 체험
이 있습니까?

38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 누군가의 확신에 찬 믿음고백
으로 이웃에게 힘이 되어 준 일이 있
습니까?

I 목 상 I

당시 유다사회에서는 사람의 장애
와 질병을 모두 죄의 결과로 보았습
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사고
의 틀을 뒤집으시며 태생 소경의 치
유를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
셨습니다. 태생 소경이었던 거지는
육신의 눈과 더불어 신앙의 눈도 뜨
면서 “주님, 저는 믿습니다”하며 오
롯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을
올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바
리사이와 유다인들은 이 일로 예수
님을 옳아매려고 합니다. 그들은 예
수님과 태생 소경을 죄인으로 몰아
가면서 육신의 눈은 뜨고 있어도 신
앙의 눈은 점점 더 멀어졌고, 이러한
시선의 차이가 서로 대립각을 세우
게 만들었습니다. 태생 소경을 단죄
하려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소경의 마음을 보시며 육신과 영혼
의 눈을 동시에 뜨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양면성이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던 세상 것들
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따
른다고 고백하면서도 그저 편안한
세상 안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동시
에 자리 잡고 있지요. 그러기에 선택
의 기로에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
느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느님 체험이 필요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회심과 같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일상 안에서 만
나는 하느님 체험이 우리의 삶을 조
금씩 변화시켜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성체조배를 자주
합니다. 성체 안에 살아 계신 주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의 삶
을 정리하는데요. 기도 안에서 그동
안 나의 욕심 때문에 미처 보지 못 했
던 부분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더불
어 예수님과의 일치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며, 그 어떤 십자가도 받아
들일 수 있는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눈을 떠 자신
을 올바로 바라보게 해주는 방법이
과연 있으신가요?



그런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문답

(▶ 지난 달에 이어집니다.)

12.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서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진 후 십자가형
을 받게 된다. 예수께서는 조롱과 모욕을 받
으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으로 오르
시어, 결국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십자가에는 ‘I.N.R.I’ 라는
죄명이 붙여졌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요?

☞ 유다인의 왕 나자렛 예수
(Iesus Nazareus Rex Iudaeorum)

13.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십자가 아래에서 지켜 본 사
람은 사랑하던 제자 한 명과 성모 마리아, 그
리고 몇 사람의 여인들뿐이었다. 그렇다면 예
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 사도 요한

14.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
을 제일 처음 목격한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 막달라 여자 마리아

15.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당시 유
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 마음을 열지 못
하고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였으며 결국에는
예수를 잡아다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
긴다.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중, 높은 관
직에 있으면서 대사제로 임명되기도 하였으
며,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 예수와 부활에
관해 토론을 벌였던 종교 지파는 어느 지파였
을까요?

☞ 사두가이파

16.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기
적들을 행하셨다.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마
귀 들린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셨다.
그런데 군중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께서 마귀
두목의 힘을 빌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말한 이 마귀 두
목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 베엘제불

17. 사도신경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
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
신 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
과 함께 어울려 음식을 먹고 마시며 하느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신 다음 승천하셨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얼마 만에 승천하셨
을까요?

☞ 40일

18. 예수께서는 죄인들을 당신의 식탁에 초
대하면서,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
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형제가 저에게 잘못
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
까?”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몇 번을 용서
해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19. 예수께서는 공 생활을 시작하면서, 당
신과 함께 하며 당신의 사명을 위해 협력할 열
두 사람을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신다. 예수께
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권한을 나누어주시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이들을 고쳐주
게 하려고 그들을 파견하셨다. 이 열 두 사도
단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첫째 자리를 차지하
는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특별 권한을 주셨
다. 그 권한이란 무엇일까요?

☞ 하늘 나라의 열쇠를 맡기심

마태 16, 19 :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
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
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20. 예수님의 공생활과 그분의 메시지 중심
이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 하느님의 나라

예수님은 공생활 시초에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마르
1, 15)는 말씀으로 당신의 사도직을 시작하
셨으며,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
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 나라
의 복음 선포하셨다.’(마태 9, 35)

21. 예수님께서 뽑으신 12사도 가운데 들
지는 않지만 유다를 대신하여 성령의 인도로
12사도 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 마티아

루가 6, 12-16 에서 보면 예수께서 직접 뽑
으신 열두 제자는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버,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토마,
알패오의 아들 야고버, 혁명당원 시몬, 야고
버의 아들 유다, 가리옷 유다(혹은 유다 가리
옷) 이다.

예담
Ye Dam Rice Cake

- 떡케익
- 영양떡
- 이바지/페백
- 달레떡
- 일반떡
- 선물세트

20년전통의 손맛 그대로~ 정성스럽게 빚어 만듭니다.

02 9740 5057
745 Canterbury Rd Belmore NSW

Silverwater POWER GOLF ACADEMY
실버워터 파워 골프 아카데미

JONG GAP KIM 김중갑 마태오
Unit 2/47 Vore St, Silverwater NSW 2128
T 02 9748 0002
M 0412 108 340

first national
REAL ESTATE | Strathfield

2013년 말 완공 예정의 좋은 투자 기회
한 주택 두 가구!!
최대 7.6% 연 임대 수입 예상
전액 Stamp Duty 면제 (\$600,000 이하)
한인성당 도보 2-3분 거리

대표 권기향 **0432 379 972** 대표전화 **(02) 9764 2999**

삼성모터스

All Mechanical Services & Repairs
Pink Slip
Blue Slip
LPG Inspection
RTA 등록 □ 무료 대행
Green Slip

Since 1989

TEL : 02 9683 1045
Unit B7/23-25 Windsor Rd. Northmead



“산책하면서 생각하면서”



일상사로 달구어진 머리도 식힐 겸 나는 새벽에 이어 저녁 산책도 즐긴다.

매양 같은 길이건만 새벽산책엔 하루를 여는 희망이, 저녁산책엔 바쁜 일상을 마무리하는 안식과 감사가 담긴다.

오늘 주택가를 산책 하며 며칠 전 돌아가신 마리아 할머니가 생각난다. 마리아 할머니는 친우 K의 시어머니이다.

간혹 K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 90이 가까운 노령인 할아버지와 다정히 손잡고 정갈한 모습으로 항상 우리를 반겨주셨다.

“세상이 하루하루 자꾸 좋아지는데 나는 빨리 가고 싶지 않아.”

할머니는 우리의 손을 잡으며 삶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유명을 달리한 후 할머니는 예전과는 달리 쓸쓸해 보이시더니 자리를 보존하다 3년 뒤 할아버지를 따르셨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을 살아오며 나도 이젠 건망증으로 가끔 깜박깜박한다.

어제는 텔레비전 리모컨이 없어져 얼마나 찾았던가? 소파를 들어내어 거실 구석구석을 살피고 소파 방석까지 들춰보았으나 오리무중이었다. 덕분에 평소 보이지 않은 곳에 쌓인 먼지를 털어 낼 수 있었지만 혹시나 하고 뒤져 본 쓰레기통에도 없었으니....

이튿날 리모컨을 찾았다. 구멍 뚫린 양말을 집느라 갖다 놓은 반진고리에 왜 리모컨을 넣었을까...

이제 살아온 세월보다 더 짧은 남은 생을 즐겁게 살아도 여한이 서릴 텐데, 나는 왜 인간관계에서 수시로 얽혀 드는 고난의 늪에 빠져드는 것인가...

어느 잡지사 기자가 ‘하늘나라’ 특집기사를 쓰기 위해 복을 주는 신과 고통을 주는 신을 만나러 떠났었다.

알아 보니 이상하게도 두 신의 주소는 같았다. 두 신이 같이 살면 얼마나 싸울까?

의아한 생각으로 찾아간 자리엔 흰 수염을 길게 늘어트린 할아버지 한 분이 구멍 속에 크고 작은 공을 열심히 던지고 있었다.

“아니 공 던지기를 하시면서 무슨 복을 나

눠준다고 하십니까?”

기자의 질문에 복 받은 놈한테 이 공을 던져서 맞추면 그 때부터 받은 그 놈이 발복 하는 거라는 대답을 듣는다.

그 공에는 고난, 두려움, 역경이라는 글씨들이 적혀있었다.

기자가 글씨가 새겨진 공의 껍질을 벗기자 그 안에 황금색의 찬란한 빛을 발하는 공이 튀어나왔는데 거기에는 ‘복’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복을 담당하는 신과 고난을 담당하는 신은 같은 신이었던 것이다.

신은 역경을 던져 이겨낸 성숙한 인간에게 복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니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었다.

어제는 난소 암을 앓던 교우가 세상을 하

직했다. 죽는다는 것을 그간 남의 일로만 알지 않았던가.

이웃의 연이은 죽음이 어떻게 하면 남은 생애 동안 잘 사는 것 일가에 조준을 맞추게 한다.

순간순간을 허투루 살지 말아야지 하는 다짐을 하게 된다.

천재 괴테는 파우스트를 통해 인생의 영욕과 애욕의 무의미를 체험한 뒤 다시 삶을 긍정했다.

곧 삶의 의미는 돈, 명예, 쾌락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살아가는 그 고생 속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수시로 찾아 드는 크고 작은 고통을 딛고 넘어 진정 ‘인생은 아름다워라’ 말하며 평화롭게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저대며 허공을 배회하던 새들도 등지로 날아들어 고적한 산책로에서 가로등 불빛이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다. 상념이 얼룩진 구름 사이로 달 빛이 창백하고 언덕에서 바라본 시가지의 반짝임이 별빛 같이 영롱하다.

(최옥자 데레사)



뜻 깊은 사순 시기를 위한 최고의 선택!

(게르하르트 바우어 지음 / 최용호 옮김 / 가톨릭출판사)



사순 시기가 되면 본당에서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사순 시기 특별 강연, 일일 피정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신앙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미를 되새기거나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는커녕 사순 시기에 묵상을 하고 싶어도 따로 시간을 내는 것조차 어렵다고들 한다.

그래도 올해 사순 시기는 다르게 보내야지 하며 뭔가 계획을 세워도 바쁜 일상에 쫓겨 지키지 못하기 일쑤다. 그러는 동안 사순 시기의 의미도 점점 흐려지기 마

련이다. 이번 사순 시기에는 하루에 단 3분만 시간을 내어 하느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매일 잠깐씩 묵상을 실천하여 신앙과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사순 시기를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로 삼아 보자. 바쁜 일상 속에서, 특히 사순 시기 동안 ‘책’으로 하는 한 달 ‘피정’ 시리즈를 한 권씩 묵상한다면 신앙이 한층 깊어지는 뜻 깊은 사순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를 애써 얻

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때는 분주함과 조급함이 아니라, 오히려 잠시 멈추는 여유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이 책은 잠깐 멈추며 정지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사실은 다음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바쁜 생활 속에 잊고 있던 여유를 찾도록 도와준다. 이 책을 읽으며 일상의 일들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삶 속에 숨어 있는 기쁨과 행복까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가톨릭 교우는 미사 참례,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 하셨듯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

- 특전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
- 주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
- 시티미사 :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
- 평일미사 : 월·수 7:30pm / 화 7am / 목 9:30am, 7:30pm / 금 9:30am / 토 9:30am (첫째주, 둘째주)
- 기 타 : 매 주일 리드컴(8:30am, 9:40am, 10:15am), 캠프(9:30am)에서 성당까지 셔틀버스 운행
- 문 의 :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

가톨릭신문은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앙 체험, 레지오 및 소공동체 활동,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 신앙생활 수기 및 수필 등에 대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 / TEL. 02 8756 3333
E-Mail. info@sydneykcc.org

HB Music College
스트라스필드 13 Abbotsford Rd, Hombush
Website www.hbmusic.com.au
E-mail info@hbmusic.com.au
대학입시, HSC, 음악영재, 각종 공쿨지도
AMEB GRADE 시험 본원에서 직접 실시
0433 534 881 원장 허마리아
9745 5353 부원장 허난

이사/물류 전문업체 주식회사 협회등록 1호
HB 한진운송
이사는 역시 한진이 최고! 이사에 관한 모든 문의 환영
최다차량 보유 8대
최대형 10톤, 9톤, 6톤, 5톤, 4톤 트럭 2대, 벤 2대 보유
7개 라인 0431 24 24 24
대표 허요셉 9648 2424

실용이 있는곳에 세게가 몰려온다!
한진IT
*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
* 키폰, IP-PABX, 070전화
* 웹 서비스, Google 상위등록
* TPG 인터넷
www.hanjin.com.au
허 안토니오 02 8064 7466
Manager 070 7899 4400

TRUE ROSES
각종 화환 / 웨딩전문
Shop 19/222-230 Church St, Paramatta
9633 1616
0423 832 854